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툰, 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불꽃처럼 8화		

8. 다시 일어서라!

고뇌하던 전봉준은 청과 일본이 개입한다는 소식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자진해산 하겠다]고 경군에게 제안했다. 그리고 27개항의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 농민 자치 기구인 집강소 설치를 제안하며 탐관오리의 척결과 노비문서의 소각 등을 요구했다. 외세에 도움을 요청했던 조정도 막상 청과 일본의 군대가 출발하자 동학군의 개혁요구를 수락하며 봉기를 잠재우려 했다. 동학군과 조정은 '전주 화약'을 맺었고, 홍계훈은 동학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물침표를 발급하였기에 동학군은 자진해산했다. 하지만 홍계훈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동학군 체포령을 내렸다. 고향으로 귀향하던 동학군이 32명이나 살해당하는 일이 생겼다.

주명과 인혁은 봉서마을로 돌아왔다. 체포하러 돌아다니는 관군을 피해 밤에 몰래 집을 찾았다. 두 사람이 무사한 데는 행랑아범의 공이 컸다. 인혁의 동학군 참여를 비밀로 하고 지난번처럼 고부 처가에 간 것으로 알려두었던 것이다. 업동은 같이 오지 않았다.

“아씨...”

주명이 너는 더 이상 내 몸종이 아니라고 하자 업동은 말을 잊지 못했다.

“이제 아씨라 부르지 마. 업동아 너 만의 세상을 찾으렴.”

“고맙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우린 똑같은 사람인 걸 동학에서 배우지 않았니. 오히려 너무 늦어 미안해.”

“건강하세요. 꼭 다시 만나요.”

“그래, 우리 나중에 좋은 세상에서 꼭 만나자. 다음에 보면 언니라고 부르고.”

주명은 미소 지었다. 업동과 주명은 한참 동안 마주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인혁은 전봉준의 권유로 동학 집강소에서 접주로 활동했다. 호남 일대의 군현에는 피신했다 돌아온 수령들이 실권 없이 자리만 지키는 상태였기에 동학군이 집강소를 통해 실질적인 통치를 했다. 집강소는 합의에 의해 조직을 결성하고 당면의 정책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모든 계층이 참여했다. 전봉준은 집강을 통해 폐정개혁을 위한 12개 행정요강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동학교도와 정부와의 숙원을 없애고 공동으로 서정(庶政)에 협력할 것, 탐관오리의 죄상을 자세히 조사 처리할 것, 횡포한 부호를 엄중히 처벌할 것,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징벌할 것, 노비문서를 불태울 것, 천민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의 머리에 쓰게 한 평양립을 폐지할 것, 청상과부의 재혼을 허가할 것, 무명의 잡부금을 일절 폐지할 것, 관리 채용에 있어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일본과 상통하는 자를 엄벌할 것, 공사채를 막론하고 기존의 것은 모두 면제할 것, 토지는 균등하게 나누어 경작하게 할 것]이었다. 인혁과 주명도 가산을 정리하고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켰다. 인혁을 키우다시피 한 행랑아범은 남겠다며 눈물로 간청했지만 인혁은 그의 여생을 편히 보낼 만한 곳을 마련해 주었다. 주명은 업동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녀가 평등한 세상에서 훨훨 날기를 바랐다. 주명의 유일한 걱정은 한양으로 올라간 주학이 연락두절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은 것이었다. 송참봉 내외는 앓아눕다시피 했고 인혁이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주학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 사실 외에는 인혁과 주명의 인생을 거쳐 가장 행복한 나날이었다.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그간의 고생을 보상하듯 서로를 사랑하는데 몰두했다. 그러나 짧은 평화였다.

“이게 뭘 난리래? 일본 놈들이 주상전하 계신 궁에 쳐들어가?”

“이 놈들 당장 몰아내야지. 어디 감히.”

“가만있으면 안 되지. 안 돼.”

동학군이 해산했음에도, 그리고 조선 조정에서 철병을 요구했음에도 일본 군대는 철수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개혁을 빌미로 조정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시작했고 6월에는 경복궁을 점령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동시에 일본군은 경군 병영에 침입해서 조선 관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왕과 관료들을 위협했다. 경복궁 침탈 이틀 뒤에는 일본 군함이 아산 앞바다에서 청의 군함을 침몰시키면서 조선 땅과 바다에서 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났다. 성환, 평택, 아산에서 전투가 이어졌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강요에 따라 한일공수동맹을 체결했던 까닭에 일본군을 지원해야 했고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백성들은 경악했고 반 일본 움직임이 일어났다. 언제나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건 힘 없던 백성들이었다. 동학 내부에서도 재봉기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전국 각지에서 일본과의 전쟁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전봉준은 결정을 미뤘다. 전주성에서 해산해서 고향으로 흩어진 농민들을 다시 집결시켜 군대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청나라와 전쟁에서 이길 정도의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대적하려면 군량미와 무기 확보 등 사전 대비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동학군의 주 병사인 농민들을 추수시기에 봉기하도록 동원하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3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굶주리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농민들을 전쟁터로 불러들일 수는 없었다. 전봉준 자신이 병을 앓고 있어 동학군 지도자로 책임질만한 상황이 아니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 등 각지에서 독자적으로 무장을 하고 민보군이나 일본군과 충돌하는 동학군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마침내 전봉준은 결단하고 기포령을 내렸다.

“부패한 서울의 권력자들, 한없이 무능한 시골의 불한당 같은 양반들. 이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기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만 것인데 비록 서울로 올라가서 일본을 축출할 수 없다 해도 나라의 운명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서울로 가자!”

삼례역의 집결지에는 1차 봉기 때부터 전봉준이 이끌던 4천 명의 정예 동학군이 다시 모여들었다.

**

주학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무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곳에 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았다.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고 주위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민보군이 되어 동학군과 싸운 것이었다.

한양에서 주학은 고민 끝에 거벽일을 받아들였다. 여차피 과거에 급제해도 관직이 어려우니 돈이나 챙기자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리시험을 치는 대신 예조판서 민영준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급제는 자신 있나?”

“자리 선점만 잘 하면 자신 있습니다.”

“알겠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돈이 모자라나?”

“아닙니다. 돈 보다는 예조에 자리 하나만 주십시오. 말단이라도 좋습니다.”

자리를 부탁하는 주학의 청을 받아들이는 민영준의 입가에 물린 알 듯 말 듯한 비웃음을 주학은 보았다. 그는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주학은 대리 시험을 치뤘고 민영준의 조카에게 차석을 안겨주었다. 답안지에 다른 이의 이름을 적어 넣으며 주학은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주학과 민영준의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일본의 경복궁 침탈 이후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주학은 다시 한 번 절망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앞날을 계속 방해하고 자신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한양을 떠났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부모님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발길 닿는 대로 떠돌던 주학은 경상도에서 민보군 모집 벽보를 보았다. 왜 동학군이 아니라 민보군이 되었는지, 부패한 권력에 상처 입은 자신이 왜 개혁을 외치는 동학군을 잡으려고 하는지 주학은 알 수 없었다. 그저 벽보를 보는 순간 인혁의 여유로운 웃음이 떠올랐다. 안락한 자리에서 사람은 다 귀하다느니 뭐니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인혁이 역겨웠다. 사랑하는 동생의 남편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안 났다. 꼬일 대로 꼬인 주학의 마음은 자신이 올라가고 싶은 세상을 엮어버리려는 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차올랐다. 그 결과 오늘 그는 손에 피를 묻히고 있었다.

인혁이 삼례로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을 때 주명이 들어왔다. 인혁은 며칠 사이 수척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 마음에 쓰였다. 다시 싸움터로 나갈 일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밥도 잘 먹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시 한 번 혼자 가겠다고 말해볼까 하다가 지난 번 그녀의 고집이 생각나 인혁은 주명의 눈치만 보며 동학군에게 전달할 군자금의 의복 깊숙이 챙겨 넣었다.

“서방님 이번엔 혼자 가시어요.”

주명은 안색이 창백했으나 눈동자는 반짝였다. 인혁은 놀라움에 눈이 커졌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따라 가면 짐만 될 거 같습니다.”

말과는 달리 주명의 표정에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 인혁은 의아했다.

“어디가 안 좋으시오? 많이 아프시오?”

대답 대신 주명은 인혁의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엉뚱한 말을 했다.

“서방님, 업동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

“보고 싶어요. 같이 있어주면 좋을텐데.”

평소의 주명과 다른 모습에 인혁은 걱정이 되었다.

“부인, 정말 많이 안 좋은 거 같구려.”

“오라버니는 또 어디 계신 걸까요. 오라버니도 안 계신 친정엔 가고 싶지 않아요. 저 그냥 여기 있을 게요.”

인혁은 주명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제 쪽으로 향하게 했다.

“도대체 오늘 왜 이러시오?”

그러자 주명은 인혁의 가슴에 기대며 설레임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서방님은 돌아오실 수 있겠지요?”

업동은 부상당한 동료들 짙은 깔린 바닥에 내려놓고 물을 떠와 먹여주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유생들이라고 만만히 보지 말랬지 않나.”

“헛, 그깟 민보군 따위. 다음엔 국물도 없어.”

“의병을 일으키는 유생들도 많다는데 일본에 붙어먹은 민보군 놈들 싹 쳐버리세.”

“그나마 무기고 털어왔으니 다행이지.”

전투의 후일담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업동은 얼이 빠진 채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금 전 민보군과의 전투에서 본 주학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믿기지 않았다.

어째서 주학이 한양도 고부도 아닌 이 곳에 와있는 것인지, 그것도 민보군이 되어 동학군과 싸우고 있는 것인지 업동은 알 수 없었다. 주학은 남장을 한 업동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그 누구도 상관 없다는 듯 미친놈처럼 칼을 휘두르며 뛰어다녔다. 그의 눈에 어린 살의가 예전 주학이라곤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같은 편인 민보군조차도 그의 칼날을 피하며 어리둥절해 했다.

주학을 본 후로 업동은 제대로 싸우지 못하다가 옆에 동료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퇴각 명령을 받아 부상자들을 데리고 진지로 돌아온 것이었다.

업동은 떠드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뒤쪽 산등성이를 올라갔다. 달빛이 환했다. 바위위에서 내려다 본 아래 마을은 산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업동의 마음에도 그림자가 졌다. 양반과 노비의 신분차이였던 그녀와 주학은 이제 동학군과 민보군으로 갈라져 영원히 접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때, 아래쪽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최 접장! 최 접장 어디 있나.”

“네. 갑니다.”

업동은 다시 바위를 내려 진지로 갔다. 김석순 접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두께서 논산으로 모이라 하시네.”

“논산이요?”

“공주성을 치려고 하신다네. 아무래도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니 중요한 곳이지.”

방금 전까지 복잡하게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던 주학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듯 업동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럼 가야죠. 공주로.”